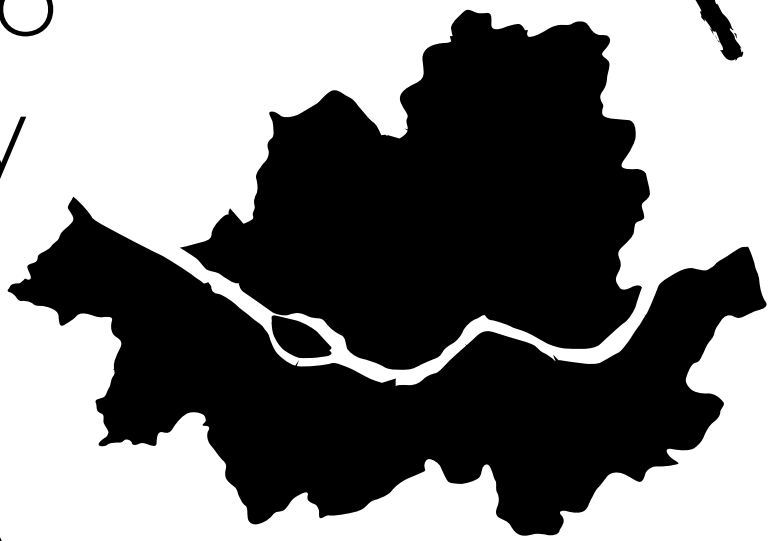




Listen to the City

2009 – 2023

urbanism
ecology
disaster
feminism





Listen to the City

미학 실천: 리슨투더시티 브로슈어 (무료 축약본)

Praxis of Aesthetics: Critical Essays on Listen to the City (Free Sample)

2023년 12월 7일 초판 발행 · **출판사** 리슨투더시티

저자 박은선

디자인 정영훈, 이세민, 박은선 **글꼴** SD라바, 가비아 훌돋, Brando

First edition published 7th of November 2023 · **Publisher** Listen to the City

Author Eunseon ParkShin · **Editor** Eunseon Park · **Design** Younghun Jung, Semin Lee, Eunseon Park

리슨투더시티 Listen to the City

이메일 Email listentothecity.org@gmail.com · **웹사이트 Website** https://www.listentothecity.org/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860-49-00658

이 책의 출판권은 리슨투더시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논문, 책 출판 등에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야합니다. 무단 사용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This book is published by Listen to the City. It is a work protected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under the Copyright Act, so any reproduction is prohibited. If you would like to use a photo for an article, book publication, etc. you must contact us by email. Unauthorized use is subject to legal penalties.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연구비평 조사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This book was produced with the support of the Arts Council Korea 2022-2023 'Artist Survey, Research, and Criticism' project

이 샘플 팜플렛은 무료이며 전체 글과 작품을 볼 수 있는 책 미학 실천: 리슨투더시티 비평집은 리슨투더시티 홈페이지에서 종이책과 전자책 구입이 가능합니다.

This sample pamphlet is free. The full text and artwork of Praxis of Aesthetics: Critical Essays on Listen to the City is available in paperback and e-book on the Listen to the City's website.

일러두기

① 인명·지명·단체명을 비롯한 고유명사는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을 따랐으나 관례로 굳어진 것은 존중했다.

② 각주는 Havard 각주 형식을 따랐으며, 영어 원문이 저널 책 제목 등에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것은 한국어 번역문에서 큰따옴표로 처리하였다.

Listen to

리슨투더시티

2009 - 2023

the City

들어가는 글
Introduction

—— 리슨투더시티는 2009년 시작되었으며, 미술, 디자인, 건축, 영화, 인문학,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콜렉티브이다. 콜렉티브의 디렉터 박은선은 미술과 도시계획을 공부하였고, 현욱은 교육운동과 도시운동을 해온 활동가이다. 그 외 윤충근, 백철훈, 정영훈, 권아주, 왕한슬, 정진열 등의 디자이너, 영국 리버풀을 기반으로 Static,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가 권수정, 전선미 등 수많은 창작자들과 협업해왔다.

리슨투더시티는 한국의 과도한 개발과, 환경적 사회적 무책임, 문화적 다양성 파괴에 대한 문제에 의문점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시작했으며 Urban Drawings라는 대안 도시·건축 잡지를 만들어 왔다. 서울의 이면을 산책하는 "서울투어 프로젝트(2010-현재)", 도시에 대한 상상력을 다루는 프로젝트 "리버풀–서울 도시교환(2010)", 도시 문제를 영상의 언어로 다루는 "도시 영화제(2011-현재)", 강과 생명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모래 갤러리 프로젝트" 그리고 도시

Listen to the City is an art, urbanism, and research collective that started in 2009. We consist of urban researchers, designers, architects, filmmakers, and activists. Our membership is flexible and open. The director of the team, Eunseon Park, studied art and urban planning, and one of the main members, Hyunwook, is an anti-gentrification activist. We have been collaborating with graphic designers, including: Chung-geun Yoon, Cheolhun Paik, Younghun Jung, Ahju Kwon, Hanseul Wang, Soojeong Kwon, Jung Jin-yeol, and Static, the art and architecture collective based in Liverpool, UK.

Listen to the City began its creative activities by asking questions regarding environmental and social irresponsibility and the destruction of cultural diversity—problems linked to the excessive development of Korea. And, since 2009, the group has been publishing an alternative urban and architectural magazine called Urban Drawings. Listen to the City's exhibitions include: Seoul Tour Project (2010-present), which takes the format of a walking tour around various areas of Seoul; Liverpool-Seoul Urban Exchange (2010), which concerned urban imagination; Urban Film Festival

역사와 존재의 다양성의 파괴에 대해 다루는 창작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다큐멘터리 제작도 계속해오고 있다. <도시목격자>,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장소상실> 등의 영화는 인디다큐페스티벌, 서울인권영화제, 디아스포라 영화제 등에 초청되어 상영한 바 있다.

리슨투더시티의 초점은 '미술시장에서 어떻게 유통되는가' 가 아니라 '사회의 맥락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고, 이에 대해 창의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리슨투더시티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물질이나 형식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 주제에 가장 적합한 형식을 찾기 때문에 물질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전통적 방식의 예술과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 리슨투더시티는 주제의 매락에 따라 드로잉, 디자인, 영상, 연구, 출판, 세미나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창작하며 공익소송과 법 개정 활동도 하고 있다.

이 브로슈어는 리슨투더시티의 2023년 발간된 미학 실천의 일부를 간추렸다. 전체 프로젝트 및 비평문은 책을 참고해주기를 바란다

리슨투더시티는 여러 사회적 현상을 기록해왔지만 정작 리슨투더시티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못했다. 단편적이지만 리슨투더시티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1-present), which deals with urban issues through the language of video; and Morae Gallery Project, which touches on problems facing rivers and life. In addition, the group has continued to produce documentaries, and engage in creative activities that concern urban history and diversity. Listen to the City's films, such as City Witness (2018), No One Left Behind (2018), and Loss of Place (2019), have been included in the Indy Documentary Festival, the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and the Diaspora Film Festival.

We do not focus on how our activities are displayed or circulated in art galleries. Instead, our primary goal is to pose a set of creative questions and search for answers within the social context. Our approach to art differs from the conventional preoccupation with materials and form. We engage in a variety of activities aimed at creating a sustainable and resilient urban community, always seeking the most appropriate format for a given project without prioritizing artistic form. Depending on the theme of a particular project, Listen to the City's work takes the form of various media, including drawing, design, video, research, publications, seminars,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law revisions.

This pamphlet is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book Praxis of Aesthetics: Critical Essays on Listen to the City. The full text and artwork of is available in paperback and e-book on the Listen to the City's website. We have documented various social phenomena, but we felt ashamed that there was no record of Listen to the City itself. This led us to plan this book. While it may be limited in scope, we hope it can serve as an opportunity to share Listen to the City's philosophy.

리슨투더시티 미학 실천: 예술과 현실의 이분법 너머
Aesthetic Practice of Listen to the City
: Beyond Dichotomy of Art and Reality

박은선
Eunseon Park

예술은 이데올로기를 교란한다.
Art disrupts ideology.

1. 들어가며
Introduction

—— 리슨투더시티는 미술, 디자인, 건축, 영화, 인문학,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콜렉티브로 2009년 <어반 드로잉스>라는 대안 건축, 도시 잡지를 만들면서 시작했다. 우리는 한 가지 형식을 추구하는 예술보다는 연구, 출판, 영화제작, 그림, 공연, 집회 등 여러 형태로 주제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식을 정하고 제작한다.

2000년대 서울에서는 청계천 개발로 많은 노점상들과 상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동대문 운동장이 사라지고, 500년 넘은 피맛골 골목이 사라졌다. 2003년 뉴타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동네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아파트로 변했다. 리슨투더시티가 결성된 2009년은 용산참사가 있던 해이고,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점거가 있던 해이고, 4대강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와 관료주의와 부동산 판타지를 쫓는

Listen to the City is a collective that comprises people from such various fields as art, design, architecture, film, the humanities, and urban planning. It began in 2009 with the creation of an alternative architecture and urbanism magazine, Urban Drawings. Rather than pursuing one specific form, we choose to produce works in a variety of forms depending on what is most suitable to a specific theme. We have, over the course of our existence, worked with such forms as research, publishing, filmmaking, painting, performance, and public assembly.

In Seoul, during the 2000s, many street vendors and merchants lost their jobs due to the Cheonggyecheon Stream development project. Dongdaemun Stadium disappeared, as did the over 500-year-old alley, Pimatgol. With the passage of the New Town Special Act in 2003, many neighborhoods disappeared without a trace and were replaced by apartment buildings. When in 2009 Listen to the City first formed, the Yongsan disaster took place, the occupation of the Ssangyong Motors factory in Pyeongtaek occurred, and the

시민들의 합작은 너무나 단단해서 마치 하나의 몸 같았다. 부동산 개발 광풍을 부채질하는 국가와 지자체들, 난무하는 개발 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문화재 보호법을 무시하고 세입자 대책도 없이 수많은 생물의 보금자리와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내쫓았다. 이 국가라는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이 비어있다고 생각했고, 가치를 상실한 권력이 휘두르는 위험하고 폭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폭력은 법으로 정당화되며, 대다수의 무거운 침묵으로 완성되었다.

우리가 볼 때 한국 사회는 지속불가능했다. 그래서 2009년 처음 만들었던 대안 건축, 도시, 예술 잡지인 <어반 드로잉스> 1호의 주제는 "지속불가능한 도시" 이다. 우리는 많은 인터뷰들에서 리슨투더시티를 시작한 중요한 계기가 용산참사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우리는 그전부터 콜렉티브를 구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9년의 용산참사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허망하게 돌아가신 평범한 여섯 명의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함이며, 그들이 겪은 폭력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가 가진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광기와 가치 없는 권력이 가진 위험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였다. 2007년부터 용산은 투기로 들끓었다. 용산역 부근에 땅을 가진 공기업 한국철도공사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철도차량기지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56만 6,800m2(약 17만평)을 초고층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철도청, 삼성물산, 국민연금, 롯데관광 등이 주축이 되어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서울시는 4대강 사업의 연장선으로 용산과 중국을 잇는 뱃길을 만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매일경제, 2009).

그 영향으로 용산4구역에서도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삼성물산, 대림건설, 포스코의 컨소시엄인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소위 말하는 A급 용역깡패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방화, 욕설, 배변 보기, 성추행을 포함한 폭력 저질렀으며 용역회사 파크앤시티는 4구역에서 조합으로부터 105억 원을 받았다(광주in, 2009). 용역깡패들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경찰과 철거민을 내쫓는 작전을 진행했고(미디어오늘, 2009),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이 죽었으나 무리한 진압을 한 경찰, 서울시나 중구청 관계자 중 그 아무도 처벌받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began in earnest. The factors of neoliberalism, bureaucracy, and citizens in pursuit of real estate fantasies congealed as if they were one body.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s that fueled this real estate development craze, as well as the omnipresent Special Act on Development, eschewed environmental protection assessments, ignored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s, and evicted or otherwise seized the property of many without regard for tenants.

In our view, South Korean society was unsustainable. Therefore, the first issue of Urban Drawings, an alternative architecture, urbanism, and art magazine first issued in 2009, dealt with the issue of the "unsustainable city." We have stated in many interviews that it was the Yongsan disaster that spurred the formation of Listen to the City. In fact, even before then we had planned to form this collective. However, we continue to refer to the Yongsan disaster in order to keep alive the memory of the six ordinary people who died in vain, and to remain cognizant of the violence they suffered. The Yongsan disaster was a symptom of the madness of real estate specul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dangers of worthless power. From 2007, the Yongsan area became overridden with speculation.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 public corporation with land near Yongsan Station, launched a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with monetary ambitions. The Yongsan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project was intended to develop 566,800m² of the railway base and the Seobu Ichon-dong area into a high-rise. The Korea Railroad Administration, Samsung C&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Lotte Tourism created a consortium, and the Seoul city government even announced a plan to create a waterway connection between Yongsan and China as an extension of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Maeil Economy, 2009).

As a result, redevelopment commenced in Yongsan District 4, which was a consortium of Samsung C&T, Daelim E&C, and POSCO. Here, so-called Class A gangsters set about committing violence, arson, swearing, defecating, and sexually harassing people in an effort to evict residents opposed to the redevelopment. This happened as the Park & City company received 10.5 billion won from the union in District 4 (Gwangju in, 2009). These contracted gangs carried out an operation to remove the evictees with Samsung C&T construction company, and the police (Media Today, 2009). Six people were killed as this took place, but no one from the police, Seoul city government, or Jung-gu Office officials, who were responsible for such excessive means of suppression, have ever apologized or been punished.

2. 리슨투더시티 활동의 태도와 목표
The Attitude and Objectives of Listen to the City

2.1. 지속가능한 전환과 공통재의 회복
The Sustainable Transformation and Restoration of the Commons

리슨투더시티는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위해

- ✓ 첫째, 공통재(the commons)가 사유화되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 ✓ 둘째, 몫 없는 자들을 가시화하기
- ✓ 셋째, 지속불가능한 토목국가 시스템을 기록하고 소수자의 시선으로 질문하는 일: 페미니스트 저항 도시계획(feminist insurgent planning)의

Listen to the City is for sustainable urban transformation by:

- ✓ Increasing awareness of the privatization of the commons
- ✓ Making marginalized people visible
- ✓ Documenting the unsustainable civil engineering system and questioning it from minoritarian perspectives: we interpret the city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t insurgent planning

관점에서 도시 해석하기

ᵛ 넷째, 도시권 회복하기 등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 활동의 목표는 지속불가능한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전환(sustainable transition)하는 일이며, 도시에서 공공의 영역은 무엇이고, 공통의 가치는 무엇인지 발굴하고 질문한다. 지속가능성의 4가지 기둥은 생태, 사회적 경제, 평등, 문화이다. 지속가능한 전환이론(transition theory)이란 단순한 기술 혁신(innovation)과는 다르게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내포한 진보라는 점에서 다르다(송위진, 2012).

도시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공통재(the commons)와 도시권(the rights to the cit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통재(the commons)는 흙, 공기, 물처럼 공동체에 속한 자원을 뜻하며, 역사, 언어, 지식 등도 인류가 "함께" 만들어 낸 자산으로 동시대 사람들 모두에게 속한 다음 세대도 사용해야 하는 모두의 것이 때문에 누구에게도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Hardt, 2010). 부패한 국가일수록 공통재를 민영화하고 사유화기 때문에 우리(시민들)는 공통의 영역을 늘 주목해야 한다(Harvey, 2007).

리슨투더시티는 도시 공간 역시 한 두 사람이 만든 사적 소유물이 아닌 집단 지성의 결과인 공통재로 본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도시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도시를 거주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일종의 집합적 '작품' (oeuvre)으로 보았는데 그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공간"은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축소되고 왜곡되어 있다. 하이데거는 공간을 반복되는 만남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기억과 감응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Easthope, 2004).

리슨투더시티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ᵛ Prioritizing the principle of restoring the right to the city

The goal of our activities is to transform unsustainable cities into sustainable ones, and we explore and inquire about what the public sphere is and what the common values of the city are. The four pillars of sustainability are ecology, social economy, equality, and culture. Unlike mere technological innovation, sustainable transition theory entails advancements that maintain the value of sustainability (Song, 2012).

For the sustainable transformation of cities, it is crucial to pay attention to the commons and the right to the city. The commons refers to resources belonging to the community, including the soil, air, and water. Moreover, such things as history, language, and knowledge should not be owned by anyone because they are all assets that have been created "together" by humanity (Hardt, 2010). As corrupt nations privatize the commons, we, as citizens, should always pay attention to the commons (Harvey, 2007).

Heidegger argued that places "are constructed in our memories and affections through repeated encounters and complex associations" (Easthope, 2004)

Listen to the City also views urban space as a common resource that has resulted from collective intelligence—this in contrast to the view of urban space as private property created by one or two people. Discussing the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Henri Lefebvre saw the city as a kind of collective "oeuvre" manifested by inhabitants together, and our perspective is consistent with this conception. In modern society, "space" has been distorted and reduced to a mere means of generating profit.

Similarly, we stress how urban space and land are not simply objects of speculation and potential profit, but are rather ontological spaces that cultivate human culture.

If what Listen to the City wants to protect is the commons, in keeping with Henri Lefebvre's concept, it can be said to form the basis of efforts to preserve commonality. Urban rights are exclusive rights: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right to difference and the right to information; the

공통재에 있다면,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가 창안한 개념인 도시권(The rights to the city)은 공통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도시권은 전유의 권리, 참여의 권리, 차이에 대한 권리와 정보에 대한 권리, 도시 거주자의 권리, 도시 중심부에 대한 권리이다. 우리의 활동이 단순히 르페브르의 이론을 실천하는 단위는 아니지만 그의 이론은 우리 활동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특히 르페브르는 공통의 공간이 국가와 투기 이익에 의해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을 우려하였으며 공통성을 만들기 위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상상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Fenster, 2005; Harvey, 2008; Lefebvre, 1974; McCann, 1999; UN HABITAT III, 2016).

rights of city dwellers; the right to the center of the city. Although our projects do not simply put into practice Lefebvre's theory, his conception has provided much inspiration. He stated that he was concerned with the commons, the nature of which would change because of the actions of the state and speculative interest; and he affirmed that imagination was what could create commonality. In keeping with this outlook, we strive to imagine a better city (Fenster, 2005; Harvey, 2008; Lefebvre, 1974; McCann, 1999; UN HABITAT III, 2016).

2.2. 탈식민 미학의 정치
The Politics of Postcolonial Aesthetics

리슨투더시티가 볼 때 우리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이 땅을 공유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에 대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우리가 스스로를 탈식민화하는 주체적 과정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의 역사를 무시한 예술은 다국적기업의 제품과 같이 매끈하다. 필자는 예고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미술대학과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대학에서 현대예술론과 서양미술사를 가르쳤다. 그 후 도시 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어렸을 때부터

From the perspective of Listen to the Cit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onsistently affirm where we are and with whom we share this land. This process of identifying where we are and what we have is a subjective and decolonial process. Art that ignores the history of the space in which humans reside can be compared to the products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my case, I majored in Western painting in an art high school as well as in an art college and graduate school. I then taught modern art theory and Western art history at the college level before earning a master's degree and a doctorate in urban engineering. Since I was young, I often wondered why I should study Western

내가 왜 한국 미술과가 아닌 서양화과를 다녀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땅, 호흡, 소리의 교란자: 포스트콜로니얼 미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 이론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의 도시 역사라는 것은 따로 없었고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약간의 일본 이론이 복합되어 있었다. 한국의 미술사나 한국의 도시역사는 제대로 기술된 적이 없고 대학에서 배우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한국에서, 서울에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위치적, 시간적 확인 행위와 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예술가라는 주체로서 이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철학과 예술은 무엇인지를 묻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중요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의 순수하고 고유한 무엇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유함이 없음, 호미 바바가 말하는 혼종의 공간(in between)을 긍정한다. 호미 바바는 식민지의 문화가 피식민 문화와 만나는 혼종과 낀 공간에서의 역동성을 발견하며 순수한 문화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호미 바바는 "탈식민지적 세계의 문화적 역사적 혼성성이 패러다임의 출발점으로 주어졌을 때, 참여적인 이론의 전망의 기능이 무엇인지" 라고 질문했다(호미 바바, 2012). 혼종 자체는 어떤 방향성도 없으며 진보를 담보하지 않는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목도하는 혼종이란 단순히 제국과 피지배국가의 문화뿐만이 아니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폭력, 한국 전쟁이 남긴 군사주의, 신자유주의와 맹목적인 배금주의, 관료주의였다. 다시 말해 혼종을 긍정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호미 바바는 "무엇에 참여하는가?" (Bhabha, 2012)라고 묻는다. 또한 그것이 '이론적인 것' 과 '행동적인 것' 으로 이분시킬 경우 다양한 정치적 글쓰기 형식의 효과가 모호해진다고 말한다.

art instead of Korean art. Detailed discussions of this can be found in the catalogue for "Disturbants of land, breath, sound: Aesthetics of Post-colonial culture." The situation was the same in regard to urban theory. There were combinations of European, American, and some Japanese theories, but nothing specifically related to Korea. The history of Korean art and urbanism have not been properly reckoned with, and they are not taught in universities. Therefore, I decided that it was of chief importance to investigate the time and place in which I was making art in Seoul and Korea more broadly. It was important to ask, as an artist, what type of philosophy I wanted to have and what type of artmaking I wanted to do.

That said, we are not arguing that there is something pure and exceptional about Seoul. Rather, there is a lack of uniqueness, and it affirms what Homi Bhabha terms the "in-between." Bhabha emphasizes how any pure culture is impossible, and instead advocates for discovering the hybrid dynamics of spaces where colonial and colonized cultures confront each other. Bhabha asks, "what the function of a committed theoretical perspective might be, once the cultural and historycal hybridity of the postcolonial world is taken as the paradigmatic place of departure." (Bhabha, 2012). Hybradization, in and of itself, does not have a particular direction and does not guarantee progress. The hybridity found in Seoul is not simply that of empire and of a subjugated country—the forms of violence wrought by Japanese imperialism, the militarism of the Korean War, neoliberalism, blind pursuit of profit, and bureaucracy. In other words, hybridity alone does not present any new value. Bhabha asks, "Committed to what?" (Bhabha, 2012). He also discusses how the effects of different forms of political writing become ambiguous when they are split into the categories of "theoretical" and "actional."

"파업조직에 연관된 전단은 이론적으로 미흡하다든가 이데올로기 이론에 대한 사변적인 논설은 좀더 실천적인 사례와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둘은 모두 담론의 형식들이며, 그런 만큼 지시대상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생산한다. 양자의 차이는 그들을 운용하는데 따르는 질적인 차이에 있다. 전단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사건으로 도약하는 특수하게 설명적이고 조직적인 목적을 지닌다. 반면에 이데올로기 이론은 파업의 올바름을 알리는 정치적 이념과 원리를 내포하게 하는 데 있다. 후자가 전자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데올로기 이론이 전단보다 반드시 선행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으로서 그 둘은 서로 나란히 병행한다. 평범하지 않은 정치학의 문맥에서 평범한 기호학적 비유를 사용하자면 그 둘은 얇은 종이의 표면과 이면의 관계와도 같다." (호미 바바, 2012, 70p)

"It is not as if the leaflet involved in the organization of a strike is short on theory, while a speculative article on the theory of ideology ought to have more practical examples or applications. They are both forms of discourse, and to that extent they produce rather than reflect their objects of referenc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lies in their operational qualities. The leaflet has a specific expository and organizational purpose, temporally bound to the event; the theory of ideology makes its contribution to those embedded political ideas and principles that inform the right to strike. The latter does not justify the former; nor does it necessarily precede it. It exists side by side with it – the one as an enabling part of the other – like the recto and verso of a sheet of paper, to use a common semiotic analogy in the uncommon context of politics" (Bhabha, 2012, 21-22p).

우리의 작업은 단순하게 진보와 보수, 혹은 실천과 미적 이미지라는 이분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데올로기와 행동의 이분법을 반대한다. 우리의 모든 연구와 창작행위는 '이데올로기들 사이에 끼어드는 과정' 에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정치학 간의 전통적인 이분법을 혼란시키며 교란한다.

The work of Listen to the City does not correspond to a simple dichotomy of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or praxis and aesthetic image, but rather opposes the dichotomy between ideology and action. All of our research and creative pursuits involve a "process of intervening in ideologies." This approach confounds and disrupts the conventional dichotomies of political science.

2.3. 몫 없는 자들의 몸부림
The Struggle of Those Without a Share

가야트리 스피박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다(모리스, 2013). 스피박의

Gayatri Spivak has asked "Can the subaltern speak?" (Morris, 2013) and her argument is not to say that the

주장은 서발턴이 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발턴을 하나의 단일한 타자로 묶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스피박은 식민주체 혹은 서발턴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는데 '비서구'를 단지 타자라는 하나의 용어로 일반화함으로써 그 안에서 사라지는 차이를 지적했다(정혜욱, 2004).

비슷한 논지에서 호미 바바는 선지자적 공동체는 없다고 말한다. 문화는 결코 그 자체로 단일한 것이 아니며, 타자에 대한 자아의 관계에서 단순히 이원론적인 것도 아니다(Bhabha, 2012).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예술가들과 연구자들은 타자를 낭만화 하는 오류를 종종 범한다. 우리가 연대하는 철거민들이나 쫓겨나는 사람들은 균질하지 않으며 그들은 길 잃은 어린양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13년이 넘는 "쓰고, 슬픈" 경험에서 배운 것이다. 균질한 타자란 없다. 우리는 대신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뿐이며,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그들의 말을 전달할 뿐이다. 그들은 말은 할 수 있지만 말을 소유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랑시에르, 2008). 옥바라지 골목의 철거민들은 스스로 이미 옥바라지 골목의 서사를 만들었고, 이 골목에서 살고자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듣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하고 공유하는 끊임없는 노동을 하는 숙명을 가졌다. 우리는 쫓겨나는 자들, 몫이 없는 자들을 가시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친다.

리슨투더시티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자리로 밀려난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환상이다. 우리는 타자를 대표하지도 않고 대표할 수도 없다.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함께 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그들의 싸움을 의미 있게 종결할 수 있을지 질문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철거민들도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환영하지 않는다. 우리는 청계천 금속 제조업자들과 유통업자들의 이야기를 외부로 전달하고 고립된 자들을 밖으로 연결시키는 일들을 했다. 도시의 재개발 투쟁에서 고립됨만큼 위험한 일도 없는데 왜냐하면 용산참사와 마찬가지로 철거민이 고립되는 순간 시행사들은 합법적 폭력을 이용해 그들을 내쫓기 때문이다.

타자는 왜 균질하지 않는가? 가령 서울의 옥바라지 골목 보존 운동에 주체가 되었던 주민 두 명은 철거민이라고 불렸지만 둘 다 가옥주였다. 즉 세입자가 아니었다. 그 점 때문에 소위 말하는 활동가들 중 일부가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옥바라지의 투쟁 주체들이 그들이 상상하는 도시 빈민의 프레임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계천 을지로의 금속제조 장인들과 유통상인들은 우리들은 "상인"이라고 보통 부른다. 즉 "동지"라는 노동운동의 명칭이 아니라 "상인"이라는 명칭으로 자본가의 이름으로 부른다. 실제 이들 중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도 있지만 10억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꽤 있다. 그들을 "빈민"이나 "도시 노동자"라고 정체성 하기 어려운 이유이며, 그것이 일부 도시 빈민 연구가 실제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균일한 타자로 도시의 사람들을 호명할 때, 그들은 왜곡되며 그들과 소통할 수도 없다. 우리는 쫓겨나는 사람들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함께 언어를 만들고 다양한 존재들과의 연대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감각을 길러간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미학적 실천은 랑시에르가 말하는 감성의 분할과 비슷하다. 도시의 보이지 않는 자들을 보이는 자리로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그 방법은 보도자료일 때도 있고, 사장님들이 쓴 시를 낭독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집회일 때도 있으며, 책 만들기일 때도 있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정치의 논리는 자리들의 나눔을 흐트러뜨리는 동시에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subaltern cannot speak, but rather that we should be wary of lumping the subaltern into a single designation. Spivak has dealt in depth with the issue of the colonial subject, or the subaltern, and has pointed out how differences disappear when the "non-Western" is generalized as "other" (Jeong Hye-wook, 2004). Similarly, Homi Bhabha writes that there is no prophetic community (Bhabha, 2012, 158p, 247p). Culture is never a unitary phenomenon, nor is it a simple dualistic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other. Artists and researchers who deal with social issues often make the mistake of romanticizing others. The evictees and the people we stand with in solidarity are not a homogenous group or lost sheep. We did not know this from the beginning, but have come to understand it through 13 years of bitter and sad experiences. There is no uniform other. We only provide a platform for "them" to speak and deliver their words to those who do not want to hear their voices.

"A speaking being, according to Aristotle, is a political being. If a slave understands the language of its rulers, however, he does not 'possess' it." (Rancière, 2004, 12p)". As Rancière suggests, there are people who do not own language even though they speak. The evictees of Okbaraji Alley had already made their own narrative of the space and insisted that they wanted to continue living in the alley. But no one would listen. So our fate was to do the endless labor of recording and sharing. We are constantly struggling to make visible those who are driven out, those who have no share.

What we in Listen to the City are most wary of is the illusion that we can represent the voices of anyone who has been pushed to the margins. We do not—and cannot—represent others. The best attitude to have is to understand "well enough" the person we are trying to work with and ask whether we can bring their plight to a meaningful end if they work with us. The evictees who work with us would not welcome us if we did not help them. We have conveyed the stories of Cheonggyecheon metal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and we have worked to connected those who were otherwise isolated. In the struggle for urban redevelopment, there is nothing more dangerous than isolation, because, as in the Yongsan disaster, the moment evicted residents become isolated, developers use legal violence to force them out.

Why is the other not homogenous? To take one example, two residents who took part in the Okbaraji Alley preservation movement in Seoul were called "evictees," but both were in fact homeowners. In other words, they were not tenants. And this caused an uproar, as some of the so-called activists questioned their sincerity. This was because those involved in the Okbaraji struggle did not fit the image of the urban poor they had imagined. Metal craftsmen and distributors in Cheonggyecheon and Euljiro often call us sajangnim ("boss"); which is to say, they use the language of capitalism rather than that of labor movements, in which we would be called dongji ("comrade"). Some of them have low income levels, but there are a quite a few who earn one billion won. That is why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m as "poor" or "urban workers," and hence some studies on the urban poor fail to explain the reality. When we refer to the people of the city as a homogenous group of others, they become distorted and we cannot communicate with them. In the process of struggling alongside those who have been driven out, we create a language together and develop a sense of minoritarian solidarity.

In that respect, our aesthetic practice can be compared to Rancière's conception of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Rancière, 2004). Sometimes the method is to issue a press release, sometimes it involves reading poetry written by the Euljiro merchants sometimes it is a rally, and sometimes it entails creating a book. According to Rancière, the logic of politics disrupts the distribution of space, and at the same time disrupts the distribution of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Park Min-soo, 2012). "Politics intervenes in the system of sensory division through subjectivism and reconstructs it. Aesthetics also reorganizes the system of sensory division that constitutes our perception, our way of thinking, and our actions" (Kim Ki-soo, 2016).

나눔을 흐트러뜨린다(박민수, 2012). 랑시에르에게 정치와 미학은 근원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정치는 주체화를 통해 감각의 분할체계에 개입하여 그것을 재구성하며, 미학도 우리의 지각, 사유 방식, 행위를 구성하는 감각의 분할체계를 재편하기 때문이다." (김기수, 2016)

"감성의 분할은 그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이 활동이 행해지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누가 공통적인 것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어떠어떠한 '점유'를 가지는 것은 공통적인 것에의 능력들 또는 무능력들을 그렇게 규정한다. 그것은 공통의 말 등을 부여받아 공통 공간에서 보이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정치의 기저에, 벤야민이 말하는 '대중들의 시대'에 고유한 그 '정치의 미학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어떤 '미학' 있다." (랑시에르, 2008, 14p)

자끄 랑시에르는 정치(politique)와 치안(police) 두 단어가 모두 정치의 어원인 폴리테이아(politeia)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점에 착안하며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정치적인 것 le politique' 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치안이란 "통치의 과정" 이며 사람들의 자리와 기능을 위계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바탕을 둔다. 그러나 정치는 "평등의 과정" 으로, 이는 "아무나 와 아무나 사이의 평등 전제와 그 전제를 입증하려는 고민이 이끄는 실천들의 놀이" 라고 말한다(박민수, 2012; 진은영, 2009).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reveals who can have a share in what is common to the community based on what they do and on the time and space in which this activity is performed. Having a particular 'occupation' thereby determines the ability or inability to take charge of what is common to the community; it defines what is visible or not in a common space, endowed with a common languaage, etc. There is thus an 'aesthetics' at the core of politics that has nothing to do with Benjamin's discussion of the 'aestheticization of politics' specific to the age of the masses." (Rancière, 2004 12–13p)

Rancière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words "politique" and "police" both derive from politeia, the root of politics, and he argue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words is at the core of politics. Policing is a "process of governance" and is based on the hierarchical distribution of people's positions and functions. However, politics is a "process of equality," which is "a play of practices based on the premise of equality between one another and the commitment to proving that premise" (Park Minsu, 2012; Jin Eunyoung, 2009).

2.4. 탈식민 도시 계획: 페미니스트 저항도시 계획
Postcolonial City Planning: Feminist Insurgent Planning

한국에서 도시의 운명은 소수의 관료들과 정치적 이익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시민들이 참여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 현재의 도시 계획이란 식민지 시대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시민" 은 존재하지만 도시 계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 계획에서 절차상으로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으나 현재 도시 계획에서 "참여" 란 구색을 맞추기 위한 절차적 해프닝 수준이며 아직 유의미한 정책으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쫓겨나는 자들의 목소리가 도시 계획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저항도시 계획은 여성이 남성이 우월하다는 본질주의적 논리가 아니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이란 가장자리에 밀려난 자들의 시선에서 도시를 사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첫째. 주변화된 존재들 목소리로부터 진실을 구성하는 페미니즘 인식론에 기반하며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보편적 정의론에 바탕한 도시 이론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진실' 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Haraway, 1988; Harding, 2007; Young, 2002). 레오니 샌더콕 같은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가부장적 질서의 신자유주의 도시에서 '다양성' 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질문했으며 그 해결법으로 이러한, 도시 문제를 중층적으로 사고하려면 지역, 젠더, 연령, 정치, 법, 역사 등 사회적 맥락을 살펴야 하며 진실이란

The fate of cities in South Korea is determined by a small number of bureaucrats and political interest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are a limited number of way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Opinions can be expressed, but need not be reflected. In the current situation, "citizens" are recognized as existing, but not in the realm of urban planning—just like in the colonial era when the Japanese General Government did not have to consider the opinions of Koreans. While there is a procedural process in place whereby residents can voice their opinions, in the current state of urban planning, "participation" is simply procedural and has not yet risen to the level of meaningful policy. What is needed is a methodology to ensure that the voices of those who are driven out are reflected in urban planning. The feminist insurgent planning we advocate for is not an essentialist logic that insists that women are superior to men. A feminist epistemology means thinking about the c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who have been pushed to the margins.

First, it is based on a feminist epistemology that constructs truth from the voices of the marginalized, and which opposes imperialism. Feminists have argued that we should seek "contextual truth" as opposed to an urban theory based on a universal theory of justice (Haraway, 1988; Harding, 2007; Young, 2002). Feminist scholars such as Leonie Sandercock have sought to find diversity within the patriarchal order of the neoliberal city, and the solution has been to look at the social contexts of region, gender, age, politics, law, and history in order to consider urban problems in a multi-layered manner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truth lies with the marginalized (Miraftab, 2009; Sandercock,

주변화된 자들에게 있다고 말한다(Miraftab, 2009; Sandercock, 1998).

둘째. 공간의 몰역사성을 거부한다(Lefebvre, 1974; McCann, 1999). 도시민들의 기억과 일상이 삭제된 '반 역사적' 공간에 저항하며, 도시에서 주변화 된 자들의 맥락을 중요시하고 기억하며 현재에 그 기억을 부활시키려 한다.

셋째. 문화적 제국주의를 거부하고 다양성 및 포용성을 강조한다(Harvey, 1992; Sandercock, 2003; Young, 1986). 제국주의란 비단 국가적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제국주의를 말한다. 저항적 시민권의 장소들은 외국인, 노숙인, 퀴어 등 주변화 된 존재들의 공간을 포함하며, 다른 취향과 가치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존중하고 공존해야 한다.

넷째.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을 존중하며, 상상력을 중요시한다(McCann, 1999; Miraftab, 2009; Miraftab and Wills, 2005). 신자유주의 레토릭은 "대안은 없다" 이다. 반란의 도시계획(insurgent planning)은 시민들이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희망의 가치를 상징화한다. 이 상상력에 대한 가치는 르페브르의 텍스트에서 기인하며, 모든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내제되어있는 속성이다. 르페브르의 도시권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 첫째, 도시의 상품화를 거부하며, 공간의 교환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를 중요시한다. 둘째, 도시를 둘러싼 의사결정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셋째, 획일화되는 도시에 대한 차이의 권리 넷째, 저항할 권리 다섯째, 시민이 아니라 거주자로서의 권리 여섯째, 도시 중심부에 대한 권리이다. 도시권이란 대단한 개념이 아니다. 도시나 비도시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항하는 것이 도시권이다.

다섯째, 신자유주의 도시의 정당성을 만드는 '참여' 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Allmendinger, 2017; Huxley, 2000; Miraftab and Wills, 2005). 반란 도시 계획은 참여를 통해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치의 기만을 폭로해 왔다. 헉슬리나 미라프탑 알멘딩거 등은 하버마스의 소통 합리성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소통에 참여하는 주체 간의 힘의 불균형, 균질한 시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1998).

Second, it rejects the ahistoricality of space (Lefebvre, 1974; McCann, 1999). Resisting "anti-historical" space, where the memories and daily lives of city residents have been erased, we value and remember the context of those who have been marginalized within the city and try to revive those memories in the present.

Third, it rejects cultural imperialism, emphasizing instead diversity and inclusion (Harvey, 1992; Sandercock, 2003; Young, 1986). Here, imperialism refers not only to national imperialism but also to the form that emphasizes cultural homogeneity. Resistant citizenship takes place amongst such marginalized groups as foreigners, the homeless, and queers. We must respect and coexist with others who hold different preferences and values without oppressing them.

Fourth, we respect Lefebvre's concept of urban spaces and we value imagination (McCann, 1999; Miraftab, 2009; Miraftab and Wills, 2005). The neoliberal retort is "no alternative." Insurgent planning symbolizes the value of hope that springs from citizens' efforts to create alternatives. The value of this imagination stems from Lefebvre's writings, and is an attribute that is inherent to all resistant citizens. To put it briefly, Lefebvre's concept of urban spaces involves: 1. the rejection of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city, privileging the value of use as opposed to exchange value; 2. the right to play a central rol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within the city; 3. the right to difference within a homogenized city; 4. the right to resist; 5. rights as residents not citizens; 6. the right to the center of the city. The right to the city is not a grand concept. It is about questioning and resisting the violence that occurs in urban and non-urban spaces.

Fifth, we question the "participation" that creates the legitimacy of a neoliberal city (Allmendinger, 2017; Huxley, 2000; Miraftab and Wills, 2005). Insurgent city planning exposes the deception of neoliberal politics, which justifies itself with the claim that it has obtained the consent of civil society through participation. Huxley, Miraftab, Allmendinger, and others, have challenged Habermas's model of rational communication, raising questions about the imbalance of power and uniformity amongst the subjects participating in such communication.

2.5. 다학제적 접근
Multidisciplinary Approach

앞에서 서술했듯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보이는 자리로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그 방법은 보도자료일 때도 있고, 강제퇴거 당한 상인들이 쓴 시를 낭독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집회일 때도 있으며, 책 만들기일 때도 있으며 법을 바꾸는 과정일 때도 있다. 왜냐하면 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상징적 의미, 기술, 정책, 시장, 기술 과학 지식, 기반시설이 모두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Geels, 2005). 미술사에서 알려진 미술의 방법들; 그림, 비디오 등의 시각적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미학의 정치를 충분히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의 언어도 공부했다. 그림보다 법이 우월하거나 반대로 법이 그림보다

As described above, our mission is to bring visibility to those who remain invisible. This might involve issuing a press release, reading poetry written by the evicted merchants, holding a rally, creating a book, or getting a law changed. This is because a society's transition to a sustainable approach necessarily involves changing cultural and symbolic meanings, technologies, policies, markets, techn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and infrastructure(Geels, 2005). The conventional artistic methods known from art history, such as painting or video, cannot successfully attain the politics of aesthetics that we strive for. That is why we have also studied the language of law,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on. It cannot be said that the law is superior to a picture or vice versa. This is because the two involve different forms of politics. In order to connect those who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둘은 다른 정치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자들을 외부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스템을 만드는 식민지배자들의 언어들을 해석하고 통역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are invisible to the outside world, we need people who can interpret and translate the languages of the colonizers who created the system.

3. 나가며: 콜렉티브라는 형식의 한계
Conclusion: Limitations of the Collective Format

많은 사람들이 리슨투더시티와 협업하였는데, 소통이 부족할 때도 많았고, 사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다. 2016년 옥바라지 투쟁 때부터 최근까지 함께했던 디자이너 윤충근 씨는 "재개발 도시정비법처럼 리슨투더시티 활동을 소화하려면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그런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재개발 현장이나, 내성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차분하게 소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폭력의 현장에서는 누구나 폭력의 얼굴을 배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숙한 인간이라면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하고 동료들에게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스스로 마음을 챙기지도, 타인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채로 닥치는 일들을 급하게 처리하면서 몇 년을 흘러 보냈다. 그 사이에 동료들이 그만두기도 하고 다투는 일도 있었다. 멤버를 워크숍 등을 통해서 뽑으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소개하고, 함께 공부해 가며 호흡을 맞추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운 좋게 훌륭한 디자이너들과 함께 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리슨투더시티의 활동으로는 생계를 이어나 갈 수 없다. 우리는 책을 팔아 활동비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출판 1년 만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디자이너들 동료들은 책을 디자인하고 인건비를 받는 방법으로 활동비를 마련하고, 디렉터는 대학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 우리의 활동은 NGO처럼 후원금을 받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의 목적이 NGO처럼 사회 변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적 생산물을 창조하는데도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회색의 일들이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시작도 끝도 없다. 성과가 눈으로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쫓겨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여러 도시 문제들은 더욱 악화되고, 사람들은 더욱 잔인하게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다. 더욱 우리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축적한 비공식과 공식 사이에 낀 역사는 공유되어야 마땅하다. 여전히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도시나 환경 페미니즘 활동도 무엇 하나 타인과 소통하지 않고 해낼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하는 과업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하루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Many have collaborated with Listen to the City, but there have been times when communication was problematic and issues were not properly explained. Chung-geun Yoon, a designer who has been with us since the Okbaraji Struggle in 2016, stated that "with Listen to the City's activities, there are many difficult contents to digest, such as the Redevelopment and Urban Maintenance Act, and it would have been good if there was time to learn about such things." It is almost impossible to calmly digest what happens at a redevelopment site, or the Naeseongcheon construction site, where every day is like a war. Everyone faces the violence directly and learns about it that way. As a human being I needed time to sort out what has happened and what it has meant to me, and to share it with my colleagues. But I spent years rushing through everything that came my way without being able to properly take care of myself or others. In the meantime, some colleagues quit and there were fights. We are trying to recruit members through workshops and other means, but it is not easy to introduce why we do what we do—why we study and work together. During this time, I was fortunate enough to work with great designers and I learned many things from them.

One cannot make a living through the types of activities Listen to the City engages in. We tried to raise money by selling books, but realized that it was impossible a year after publication. Our designers and colleagues have raised money by designing books and receiving payment for their work, and I decided to get a job at a university to make a living. With our activities, it is difficult to receive donations like NGOs. This is because our purpose is not only to transform society as NGOs do but also to create aesthetic products. Still, what we do falls into a gray area. It's not something anyone told me to do, and it has no beginning or end. The results are not clearly visible. However, we cannot quit because we know that if we do not stand with those who are being driven out, Seoul's various urban problems will get worse, and people will be forced out in even crueler ways. Moreover, the histories—both formal and informal—of what we have done deserve to be shared. It is still hard to work with multiple people. However, urban or environmental feminist activities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communicating with others. I think acknowledging and reflecting on what I lack is the most important daily practice among our current tasks.

— Allmendinger, P., 2017. Planning theory. Palgrave.
— Bhabha, H.K., 2012.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 Easthope, H., 2004. A place called home. Housing, Theory and Society 21, 128-138. https://doi.org/10.1080/14036090410021360
— Fenster, T., 2005. The Right to the Gendered City: Different Formations of Belonging in Everyday Life. Journal of Gender Studies 14, 217-231. https://doi.org/10.1080/09589230500264109
— Geels, F.W., 2005. The dynamics of transitions in socio-technical systems: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transition pathway from horse-drawn carriages to automobiles (1860-1930).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17, 445-476. https://doi.org/10.1080/09537320500357319
— Haraway, D., 1988.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14, 575-599.
— Harding, S., 2007. Feminist standpoints. Handbook of feminist research: Theory and praxis 45-70.
— Hardt, M., 2010. The Idea of Communism, The Common in Communism, Part of the Idea of Communism series. Verso.
— Harvey, D., 2008. The right to the city. The City Reader 6, 23-40.
— Harvey, D., 2007.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Harvey, D., 1992. Social Justice, Postmodernism and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6, 588-601. https://doi.org/10.1111/j.1468-2427.1992.tb00198.x
— Huxley, M., 2000. The Limits to Communicative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19, 369-377. https://doi.org/10.1177/0739456X0001900406
— Lefebvre, H., 1974.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Publishing.
— McCann, E.J., 1999. Race, protest, and public space: Contextualizing Lefebvre in the US city. Antipode 31, 163-184.
— Miraftab, F., 2009. Insurgent Planning: Situating Radical Planning in the Global South. Planning Theory 8, 32-50. https://doi.org/10.1177/1473095208099297
— Allmendinger, P., 2017. Planning theory. Palgrave.
— Bhabha, H.K., 2012.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 Easthope, H., 2004. A place called home. Housing, Theory and Society 21, 128-138. https://doi.org/10.1080/14036090410021360
— Fenster, T., 2005. The Right to the Gendered City: Different Formations of Belonging in Everyday Life. Journal of Gender Studies 14, 217-231. https://doi.org/10.1080/09589230500264109
— Geels, F.W., 2005. The dynamics of transitions in socio-technical systems: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transition pathway from horse-drawn carriages to automobiles (1860-1930).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17, 445-476. https://doi.org/10.1080/09537320500357319
— Haraway, D., 1988.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14, 575-599.
— Harding, S., 2007. Feminist standpoints. Handbook of feminist research: Theory and praxis 45-70.
— Hardt, M., 2010. The Idea of Communism, The Common in Communism, Part of the Idea of Communism series. Verso.
— Harvey, D., 2008. The right to the city. The City Reader 6, 23-40.
— Harvey, D., 2007.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Harvey, D., 1992. Social Justice, Postmodernism and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6, 588-601. https://doi.org/10.1111/j.1468-2427.1992.tb00198.x
— Huxley, M., 2000. The Limits to Communicative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19, 369-377. https://doi.org/10.1177/0739456X0001900406
— Lefebvre, H., 1974.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Publishing.
— McCann, E.J., 1999. Race, protest, and public space: Contextualizing Lefebvre in the US city. Antipode 31, 163-184.
— Miraftab, F., 2009. Insurgent Planning: Situating Radical Planning in the Global South. Planning Theory 8, 32-50. https://doi.org/10.1177/1473095208099297

— Miraftab, F., Wills, S., 2005. Insurgency and Spaces of Active Citizenship: The Story of Western Cape Anti-eviction Campaign in South Africa.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5, 200-217. https://doi.org/10.1177/0739456X05282182
— Sandercock, L., 2003. Out of the closet: The importance of stories and storytelling in planning practice. Planning Theory & Practice 4, 11-28.
— Sandercock, L., 1998.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A multicultural planning history. Univ of California Press.
— UN HABITAT III, 2016. Right to the City and Cities for All – Policy Dialogues.
— Young, I.M., 2002.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Young, I.M., 1986. The ideal of commun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Social theory and practice 12, 1-26.
— 광주in, 2009. '용산참사' 용역업체 105억 챙겨… 용산구청장과 친분. 광주in.
— 김기수, 2016. 랑시에르의 '비판적 예술'에 관하여:예술적 전략의 문제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83, 1-31.
— 랑시에르, 2008. 감성의 분할: 미학과 정치. Dosŏ Ch'ulp'an b.
— 매일경제, 2009. [미리가본 아라뱃길] 더 빛나는 한강 르네상스. 매일경제.
— 모리스로절린드 C., 2013.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프리즘 총서 11). 그린비.
— 미디어오늘, 2009. 경찰·철거용역, 합동작전 녹취록 파문. 미디어오늘.
— 박민수, 2012. 정치와 미학 그리고 예술: 랑시에르의 사상에 관하여 :랑시에르의 사상에 관하여. 카프카연구 27, 187-210.
— 송위진, 2012. 사회·기술시스템론과 정책적 의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Issues and Policy 60.
— 정혜욱, 2004.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심문: 가야트리 스피박: 가야트리 스피박. 새한영어영문학 46, 113-135.
— 진은영, 2009. 숭고의 윤리에서 미학의 정치로-자크 랑시에르의 미학의 정치. 시대와 철학 20, 403-437.
— 호미바바, 2012. 문화의 위치(수정판). 소명출판.
— Miraftab, F., Wills, S., 2005. Insurgency and Spaces of Active Citizenship: The Story of Western Cape Anti-eviction Campaign in South Africa.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5, 200-217. https://doi.org/10.1177/0739456X05282182
— Rancière, J., 2004. The Politics of Aesthetics: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Continuum.
— Sandercock, L., 2003. Out of the closet: The importance of stories and storytelling in planning practice. Planning Theory & Practice 4, 11-28.
— Sandercock, L., 1998.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A multicultural planning history. Univ of California Press.
— UN HABITAT III, 2016. Right to the City and Cities for All – Policy Dialogues.
— Young, I.M., 2002.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Young, I.M., 1986. The ideal of commun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Social theory and practice 12, 1-26.
— Maeil Economy Daily, 2009. [Preview of the Han River] The Brighter Han River Renaissance. Maeil Economy Daily.

연도별 주요 프로젝트 항목
Selected Project List by Year

2009–Present
낙동강 및 내성천 보존 활동 및 연구
Conservation Activities and Research on the Nakdong River and Naeseongcheon

2009–Present
대안 건축, 도시, 예술 잡지 어반드로잉스 발간
Publication of Alternative Architecture, Urban, and Art Magazine Urban Drawings

2009–Present
청계천, 동대문 지역 등 서울의 도시 개발 연구
Urban Development Research in Seoul, Including Cheonggyecheon and Dongdaemun Area.

2010–Present
서울투어 운영
Running Seoul tours

2010–Present
대안건축학교 및 도시 세미나 운영
Operating Alternative Architecture School and Urban Seminars

2011–Present
내성천의 친구들 결성
Formation of Friends of Naeseongcheon

2011–Present
스페이스 모래 – 강과 생명에 관한 독립 공간운영
We have been operating a mobile gallery called "Space Morae (Sand)"- Independent Art Space; mainly exhibiting works on Rivers and Life

2011–Present
도시영화제
Urban film festival

2011
명동 3지구 재개발 지역 마리카페 점거운동 참여
Participation in the Cafe Occupation Movement in the Myeongdong 3rd District Redevelopment Area

2014
전환도시 해킹더시티 기획
Planning for the Transition City - Hacking the City

2016
옥바라지 보존대책위 결성 및 활동
Formation and Activities of the Okbaraji Conservation Strategy Committee

2016
지속가능한 행사 체크 리스트 제작
Creating a Sustainable Event Checklist

2018–Present
재난도시 및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프로젝트 시작
Commencement of Leave no one behind project

2018. 11–Present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설립 및 활동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the Cheon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2021. 04–Present
을지OB베어 공동대책위 설립 및 활동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the Eulji OB-Bear Joint Action Committee

연도별 주요 전시 항목
Selected exhibition List by Year

2023

<걷기, 헤매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3. 4. 27.|2023. 9. 3.
2023 ACC CONTEXT Walking, Wandering, Asia Culture Center, Gwangju City, South Korea

2022

<땅, 호흡, 소리의 교란자: 포스트콜로니얼 미학> 기획 및 참여
Curating Disturbants of land, breath, sound: Aesthetics of Post-colonial culture
스페이스 C(코리아나 미술관),
2022. 12. 3.|2022. 12. 31.
Space C, Seoul, South Korea

2021

<장소특정 퍼포먼스 및 공연; 골목의 목소리> 기획(청계천 을지로보존연대 협력), 을지로 골목 일대
Planning for the Voices of the Alley (Collaboration with Cheon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Seoul, South Korea

청계천을지로 산업유통 생태계 홈페이지 개발(청계천 을지로보존연대 및 소원영 디자이너와 협업)
Development and Instruction of the Cheonggecheon Euljiro Industrial Distribution Ecosystem Website (Collaboration with Cheon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and Wonyoung So) https://social-capital.cheongyecheon.com/

2020

<모두의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2020. 4. 16.|2020. 6. 14.
Collecting for All, Seoul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리슨투더시티 제작 다큐멘터리 <청계천아틀라스: 메이커시티>,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서울인권영화제 상영
Cheonggyecheon Atlas: Maker City, Leave No One Behind, Screening at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eoul, South Korea

<청계천을지로 에코 팩토리 리빙랩 프로젝트>
Cheonggyecheon Euljiro Eco Factory Living Lab Project, Euljiro, Seoul, South Korea

<재난도시 프로젝트: 장애 포괄 재난 대비 워크샵>
Disaster City Project: Inclusive Disaster Preparedness Workshop, Seoul, South Korea

2019

<재난도시 프로젝트 2: 이주민의 COVID-19 경험에 대하여>(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협업)
Disaster City Project 2: On the Experience of Immigrants with COVID-19 (Collaboration with the Seoul Volunteer Center)

<생태감각>, 백남준 아트센터
Ecological Sense: Ecological literacy, Nam June Paik Art Center, Yongin city, South Korea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상영
Leave No One Behind, Screening at Seoul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ilm Festival

<두 번의 똑같은 밤은 없다>,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Nothing Twice, Buk Seoul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용산참사 10주년 도시영화제>, 인디스페이스 및 서울의 여러 젠트리피케이션 현장
Yongsan Tragedy 10th Anniversary Urban Film Festival, Indie Spaces, and Various Gentrification Sites in Seoul

<재난도시 프로젝트: 장애 포괄 재난 대비 워크샵>, 노들 장애인야학 및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인권위원회
Disaster City Project 2 Inclusive Disaster Preparedness Workshop, Project
Nodul Night Schoo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ommittee for the Righ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of Yonsei University

2018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좋은 삶,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Eu Zên. Seoul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Speak Out>, 여성예술인연대 기획, 삼육 빌딩
Speak out directed by AWA, Samyook building, Seoul, South Korea

<픽션-툴: 아티스트 퍼블리싱과 능동적 아카이브>, 인사미술공간(이한범 큐레이터)
Tools for Fiction: Active Archive for Artist's Publishing, Insa Art Space, Seoul, South Korea (Curated by Lee Han Bum)

<제비가 전하는 내성천 이야기>, 서울 나무갤러리
The Swallow's Tale of Naeseongcheon, Namu gallery, Seoul, South Korea

2017

<2017 서울건축비엔날레, 서울자유지도>, 청계천 동대문 젠트리피케이션·청계천 방재지도 오픈스트리트맵 지도 워크샵, 2017. 9. 1.|2017. 11. 5., (소원영, 강이룬 큐레이터)
2017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Public Programs, Cheonggyecheon and Dongdaemun Gentrification (Curated by Wonyoung So and E Roon Kang)

<제주비엔날레>, 제주현대미술관
Jeju biennale, Jeju Contemporary Art Museum, South Korea

<따뜻한 밥상, 고 김근태 6주기 추모전>, 보안여관, 서울
Warm Dinner Table, Kim Geun-tae 6th Memorial Exhibition, Boan Yeogwan, Seoul

2016

<아시아로컬리티, 도시재생과 예술>, 리슨투더시티 주최
Asia Locality; Art and Urban regeneration, Curated by Listen to the City

<마이크로시티랩>, 아이공, 서울(심소미 큐레이터)
Micro city Lab, I-gong Gallery, Seoul, South Korea (Curated by Sim So Mi)

<매터 픽션>, 포루크갈 리스본 베르라도 미술관
Matter Fiction, Museu Coleção Berardo, Portugal

<사회 속 미술 - 행복의 나라>, 북서울 시립미술관
Land of Happiness, Buk Seoul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공동의 좌표: 한국의 예술가 콜렉티브>, 국제실험영화제
Shared Standing Grounds: Art Collectives in Korea, International Experiment Film Festival, Seoul

2015

<Green Art Lab Alliance 아시아>, 밤부커튼 스튜디오, 타이페이, 대만
GALA ASIA, Bamboo Curtain Studio, Taipei, Taiwan

<국경을 너머 - 본국으로부터 망명>, 하울 스페이스, 타이난, 대만
Beyond the Borderline - Exiles from the Native Land, Howl Space, Tainan, Taiwan

<사물학 2: 제작자들의 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Objectology 2: Mak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South Korea

2014

<해킹더시티: 전환도시>, 페스티벌 및 심포지움 기획 (광주비엔날레 20주년 연계 프로그램)
Transition City: Hacking the City, Sinchon Seoul, Gwangju Biennale - performance and symposiums on the 'common space' and the art

<식물사회>, 갤러리 팩토리, 서울
Flora Society, Gallery Factory, Seoul, South Korea

2013

<도쿄-서울도시교환 프로젝트>, 디스로케이트 레지던시, 도쿄, 일본
'Tokyo-seoul city exchange', Dis-locate, Tokyo, Japan

<이스턴 프로미스>, MAK, 비엔나, 오스트리아
Eastern Promises, MAK, Vienna, Austria

<코뮤니타스>, 우메오 빌드 미술관, 스웨덴
Communitas, Bildmuseet, Umeå, Sweden

2012

<건축한계선>, 서울 문화역 284
Architecture-Limited line, Seoul station 284

<제너럴 스트라이크>, IRA, 일본 도쿄 https://generalstrikekorea.tumblr.com/
General Strike, IRA, Tokyo, Japan

<시티위딘더시티>, 거투르트 미술관, 호주
City with in the City, gertrude contemporary, Melbourne, Australia

<아시안 아트스페이스 네트워크>, 송원아트스페이스, 광주 및 서울
Asian Arts Space Network, Songwon Art space, Seoul, South Korea

<페허프로젝트>,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Ruin Project, Museum of Kyeongnam Province, Changwon, South Korea

2011

<안녕없는 생활들 모험들>, 부산시립미술관
Life, no peace, only Adventure, Busan Museum of Art, Busan, South Korea

<시티위딘더시티>, 아트선재, 서울
City with in the City, Art Sonje, Seoul, South Korea

<국외자가 국외자를, 본다>, 금천예술공장
Reflections of an outsider on "OUTSIDERS", Seoul Art space Gumcheon, Seoul, South Korea

2010

<리버풀–서울 도시교환전>, 스태틱 갤러리, 영국 리버풀
Liverpool–Seoul City Exchange, Static Gallery, UK

<리버풀 - 서울 도시교환전>, 스페이스 해밀턴, 서울
Liverpool - Seoul City Exchange, Static Gallery, UK· Space Hamilton, Seoul, South Korea

<기념비적 여행>, 스페이스 C, 서울
A monumental Tour, Space C, Seoul, South Korea

<디자인 올림픽에는 금메달이 없다>, 인사미술공간, 서울
No Gold Medal for Design Olympic Games, Insa Art Space

2009

<주거의 감각>, 플래툰 쿤스트 할레, 서울
Sense of Dwelling, Platoon Kunsthalle, Seoul

<팝업>, 스태틱 갤러리, 영국 리버풀
Pop-up exhibition at Static Gallery, UK

도시 프로젝트 목록
Projects on Urbanism

2009–Present

청계천, 동대문 지역 등 서울의 도시 개발 연구

Urban Development Research in Seoul, Including Cheonggyecheon and Dongdaemun Area.

2009–Present

대안 도시 건축 예술 잡지 urban drawings 발간

Publishing an alternative urban architecture and art magazine called "Urban Drawings."

2010–Present

서울투어 운영

Running Seoul tours

2011

두리반 점거 운동 참여, 갤러리 모래 두리반 뒷뜰에 옮김

We participated in Duriban anti-redevelopment movement

2011–Present

도시영화제

Urban film festival

2011

명동 3지구 재개발 지역 마리카페 점거운동 참여

We participation in the Cafe Occupation Movement in the Myeongdong 3rd District Redevelopment Area

2016

옥바라지 보존대책위 결성 및 활동

Formation and Activities of the Okbaraji Conservation Strategy Committee

2018. 11–Present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설립 및 활동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the Cheon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2021. 04–Present

을지OB베어 공동대책위 설립 및 활동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the Eulji OB-Bear Joint Action Committee

2010–Present

대안건축학교 및 도시 세미나 운영

Operating Alternative Architecture School and Urban Seminars

어반드로잉스 Urban Drawings

2009 | Present

대안 도시 건축 예술 잡지 urban drawings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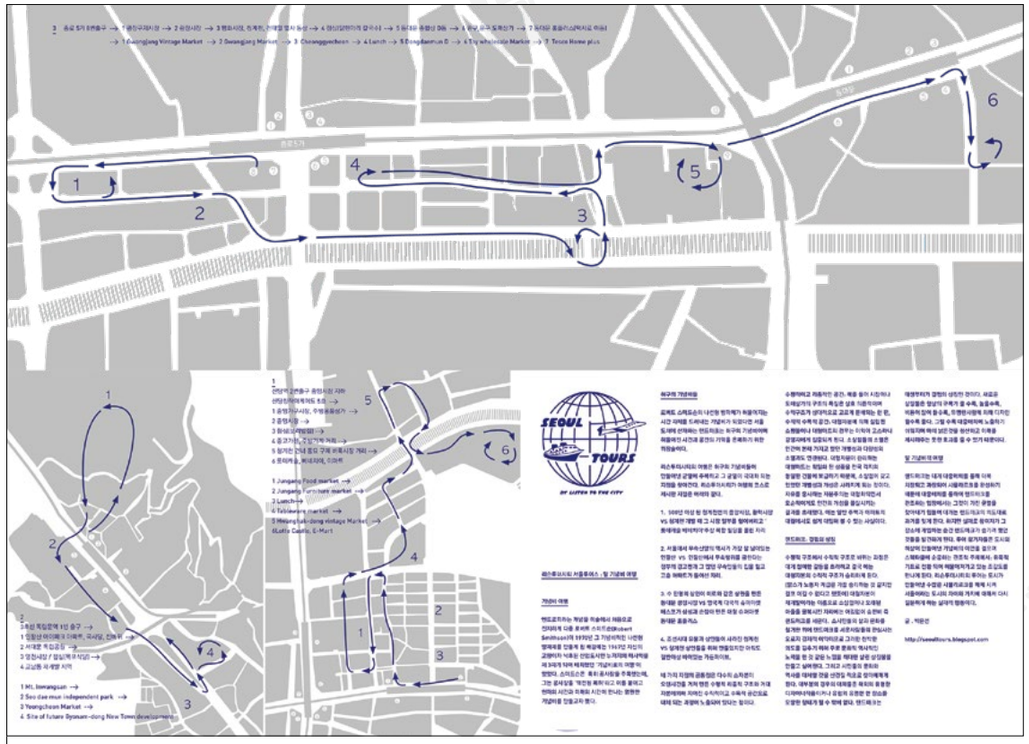
Publishing an alternative urban architecture and art magazine called "Urban Drawings".



어반드로잉스 01, 주거의 감각, 디자인: 박은선, 양주영, 2009

Urban drawings 01, Sense of dwelling, Design: Eunseon Park, Juyoung Yang, 2009

서울투어 Seoul tours



서울 투어 지도, 디자인: 정진열, 2010

Seoul Tour Map, Design: Jung Jin-yeol, 2010

SEOUL TOURS

BY LISTEN TO THE CITY

서울투어 로고, 디자인: 박은선, 2010

Seoul Tour logo, Design: Eunseon Park, 2010



서울투어; 인왕산 입구 투어, 사진: 박은선, 2010

Seoul Tour; Inwangsan Entrance Tour, Photo: Eunseon Park, 2010



서울투어; 청계천 투어, 사진: 강이룬, 2017

Seoul Tour; Cheonggyecheon Tour, Photo: E Roon Kang, 2017

청계천 동대문 젠트리피케이션 지도 프로젝트
Cheonggyecheon Dongdaemun
Gentrification Map Project





청계천 동대문 젠트리피케이션 지도 프로젝트, 사진: 강이룬, 2017
Cheonggyecheon Dongdaemun Gentrification Map Project, Photo: E Roon Kang, 2017



청계천 동대문 젠트리피케이션 지도 프로젝트, 사진: 강이룬, 2017
Cheonggyecheon Dongdaemun Gentrification Map Project, Photo: E Roon Kang, 2017

옥바라지 골목에서의 시위, 사진: 박은선, 2016

Protest at Okbaraji Alley, Photo: Eunseon Park, 2016



38년간 마을주민인 최은아 씨의 어린 시절 기억을 토대로 재구성한 옥바라지 골목 지도

38년간 옥바라지 골목에 산 주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기억 지도, 진행: 박은선 권아주 왕한슬
디자인: 권아주, 2016

A Memory Map Based on the Stories of a Resident Who Lived in Okbaraji Alley for 38 Years. Organized by Eunseon Park, Ahju Kwon, Hanseul Wang, Design: Ahju Kwon, 2016

옥바라지골목에 관한 이야기는 박은선의 논문을 참고하라.

박은선. (2019). 페미니스트 저항 도시 계획: 옥바라지 골목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운동 이야기. 공간과 사회, 68, 14–62.

Eunseon Park. (2019). Feminist Insurgent City Plananing: The Anti-Gentrification Movement Story of Okbaraji Alley.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68, 14–62.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
Cheon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activities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주물집 신아주물의 김학률. 신아주물은 2020년 퇴거로 인해 문래로 이주했다.
사진: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우에타 지로, 2019
Seoul's oldest foundry, Shin-A Foundry, owned by Kim Hak-ryul. In 2020, Shin-A Foundry
was forcibly relocated to Munrae. Photo: Cheon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nd Alliance·Ueta Jiro, 2019



신한정밀 정연정, 카메라와 인공위성 부품 등을 제작하는 기술자이다. 사진: 박은선, 2022
Shin Han Precision, Jung Yeon-jung, is a technician who manufactures components
for cameras and artificial satellites. Photo: Eunseon Park, 2022



입정동 철공소 골목, 골목 자체는 60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하며 을지로에서도 철공소가 가장 많은 골목 중 하나다.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 되어 있지만 서울시는 재개발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다. 이 골목은 2019년 철거가 시작 되었다. 사진: 박은선, 2022
The alley of Ibjeong-dong metal workshop street is estimated to have a long history, possibly exceeding 600 years. It is one of the areas in Euljiro with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metal workshops. Despite being designated as a future heritage site by the city of Seoul, there is no specific plan in place to address redevelopment. Demolition work began in 2019. Photo: Eunseon Park, 2022



대우목형 장종일, 청계천에 마지막 남은 목형 기술자이다. 그는 기계도 깎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사진: 박은선, 2022
Daewoo Wood Mold's Jang Jong-il is the last remaining wood mold maker along Cheonggyecheon. He creates items that are difficult to make using machines. Photo: Eunseon Park, 2022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는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청계천과 티타임 문화는 청계천을지로 산업생태계 홈페이지 다방 섹션을 참고하라. 사진: 박은선, 2022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the Cheon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is to engage in conversations with the shop owners. For more information on Cheonggyecheon and tea-time culture, please refer to the various sections on the Cheonggyecheon Euljiro Industrial Ecosystem website. Photo: Eunseon Park, 2022
https://social-capital.cheongyecheon.com/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상인들과 일주일에 최소 한 두번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사전협의체 기간에는 일주일에 두 세번 정도 강도 높은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2021, 2022

The Cheon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met with the merchants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to have discussions. During the pre-consultation committee period, they held intense meetings two to three times a week, Photo: Cheon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2021, 2022





청계천 세운 3구역과 5구역 에서는 중구청의 적극적 협조로 사전협의체가 열려 강제퇴거를 최소화 하고자했다. 민주적 도시개발에 큰 의미가 있는 시도이다. 사진: 박은선, 2021, 2022

In the Cheonggyecheon Sewoon 3rd and 5th zones, a pre-consult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with the active cooperation of the Jung-gu Office to minimize forced evictions. This is a significant attempt toward democratic urban development.
Photo: Eunseon Park, 2021, 2022



지식산업센터 개관식 포스터, 디자인: 박은선, 2023

Knowledge Industry Center Grand Opening Ceremony Poster, Design: Eunseon Park, 2023



상인들과 청을련 중구청 그리고 서울시 및 LH 공사의 노력으로 상생지식산업센터가 2023년 7월 20일 개관 되었다. 이는 재개발 지역에서 상공인들을 위해 만든 최초의 임대상가이다. 사진: 최혁규, 2023

Thanks to the efforts of merchants, citizens, the Jung-gu Offic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s well as LH Corporation,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has been opened 20th of July. This is the first public social shop for merchants in the redevelopment area, Photo: Choi Hyuk Gyu, 2023



생태계 네트워크 (청계천-을지로)

업체들의 거래업체 데이터를 시각화한
다. 해당 업체를 클릭하면 간단한 업체정보와
고 있는 업체를 볼 수 있다. 제조업체간의
유통업체간의 연결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와
체간의 연결도 상당히 많다.

청계천 을지로 산업 유통 생태계 및 사회적 자본 웹사이트, 디자인: 소원영, 2021

Industry&Trade Ecosystem and social capital of Cheonggyecheon, Euljiro, Design: Wonyoung So, 2021

청계천 을지로 지역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자본 연구를 바탕으로 소원영 디자이너와 청계천을지로 산업생태계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꼭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Based on a survey of the Cheonggyecheon Euljiro area and research on social capital, they collaborated with designer Wonyoung So to create the Cheonggyecheon Euljiro Industrial Ecosystem website. I highly recommend visiting it. https://social-capital.cheongyecheon.com/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 집회, 사진: 박은선, 2022. 9. 23

Protest of The Cheon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Photo: Eunseon Park, 2022. 9. 23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청계천 투어 “열린공장”, 사진: 최혁규, 2019
Cheon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Cheonggyecheon Tour ‘Open Factory,’ Photo: Choi Hyuk Gyu, 2019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청계천 투어 “열린공장”, 사진: 최혁규, 2019
Cheong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Cheongyecheon Tour ‘Open Factory,’ Photo: Choi Hyuk Gyu, 2019

청계천 을지로의 가치를 알리는 투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열린공장 프로그램에서 청계천 투어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리슨투더시티 혹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인스타그램을 참고하라. @listentothecity @cheongyecheon
The Cheong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is continuously organizing tours. Cheonggyecheon tours are available through the Open Factory Program.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Listen to the City or Cheong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on Instagram. @listentothecity @cheongyecheon



대진정밀 건물 보존 기자회견, 사진: 박은선, 2021
Daejin Precision Metalwork Building Preservation Press Conference, Photo: Eunseon Park, 2021

대진정밀 건물은 일제강점기 병원이었으며 2층 서양식 한옥이다. 건축사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건물이지만 시행사와 서울시는 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의 노력으로 건물이 새 건물 입면에 옮겨질 예정이다. 입면만 옮겨서는 충분하지 않다. 건물의 기능을 살리고 청계천 상인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The Daejin Precision Metalwork Building served as a hospita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features a two-story Western-style Hanok (traditional Korean house) design. It is not only architecturally significant but also historically valuable. Initially, the authorities, in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lanned to demolish this building. However, due to the efforts of the Cheon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there are plans to relocate the facade of the building to a new site. Merely relocating it may not be enough; it is fitting to repurpose the building into a museum that preserves its function and commemorates the history of Cheonggyecheon merchants.

내성천의 친구들
Friends of Naeseong River

2011–Present

내성천의 친구들 결성

Formation of Friends of Naeseongcheon

2011–Present

스페이스 모래 – 강과 생명에 관한 독립 공간운영

We have been operating a mobile gallery called "Space Morae(Sand)" - Independent Art Space; mainly exhibiting works on Rivers and Life

2016

지속가능한 행사 체크 리스트 제작

Creating a Sustainable Event Checklist

—— 리슨투더시티는 2009년부터 낙동강과 내성천을 중심으로 생태조사를 하고 문화 활동을 이어갔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박은선의 글(페미니스트 환경계획 내성천 친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를 참고하기 바란다.

Listen to the City has been conducting ecological surveys and cultural activities centered around the Nakdong River and Naesungcheon since 2009.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the previous writings by Eunseon Park (Feminist Environmental Planning: A Case Study of Friends of Naeseong River).



영주댐으로 모래톱이 파괴 되기 전 내성천 하류 삼강의 모습, 사진: 박은선, 2011
The view of the lower reaches of the Naeseongcheon River with the sandbars before they were destroyed by the Yeongju Dam, Photo: Eunseon Park, 2011





내성천 영주댐건설로 인해 먹황새가 오던 내성천 모래톱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 이곳은 수몰되었으며 더이상 먹황새가 오지 않는다. 사진 위: 지율스님, 아래: 박은선, 2010–2013

From 2010 to 2013,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Yeongju Dam on the Naeseongcheon River, the sand bars in Naeseongcheon River; where black strokes used to visit, disappeared. Currently, this area is submerged, and the hooded cranes no longer come.
Photographs: Top by Buddhist nun Jiyul 2010, Bottom by Eunseon Park 2013



내성천 동호 강변 앞 준설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 대화를 나누는 지율스님, 사진: 박은선, 2013

Buddhist nun Jiyul engaging in a conversation with a construction laborer on the riverside of Dongho along the Naeseong River, Photo: Eunseon Park, 2013



댐을 건설하면서 수십만그루 나무를 베어냈다.
내성천 강변의 아름드리 왕버들 나무들도 베어져 나갔다. 사진: 박은선, 2014

During the dam construction, tens of thousands of trees were cut down, including the willow trees along the banks of the Naeseong River. Photo: Eunseon Park, 2014



내성천 송리원, 사진: 리슨투더시티, 디지털프린트, 2014
Naeseongcheon Songliwon, Photo: Listen to the City, Digital Print, 2014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 수질이 악화되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사진: 박은선, 2017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Yeongju Dam, the water quality of the Naeseong River deteriorated to the point where it became unusable for agricultural or industrial purposes. However, no one takes responsibility for this. Photo: Eunseon Park, 2017



조계사의 모래 갤러리, 사진: 지율스님, 2011
Morae Gallery at Jogye temple, Photo: Buddhist nun Jiyul, 2011

리슨투더시티는 강과 생명에 관한 독립 공간인 ‹모래›를 운영 하여 수십 차례 전시를 기획했다. 모래(Morae)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뜰에서, 홍대 두리반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두리반 뒷뜰로 옮겼다가 내성천의 댐으로 인한 수물 지구 안으로 옮겼다. 현재는 내성천 상류 강가에 있다.

Since 2011, Listen to the City has been operating a mobile gallery called ‘Space Morae’—an independent art space dedicated to rivers and life. We have curated over 20 exhibitions.

“Morae” was initially placed in front of Jogyesa Temple in Jongno-gu, Seoul, and later moved to the backyard of Duriban in Hongdae to prevent forced evictions. Subsequently, it was relocated to the Naeseongcheon River dam site area and is currently situated in the upper stream of Naeseongcheon.



내성천과 버들군락, 그림: 박은선, 디자인: 정영훈, 권아주, 2014
Naeseongcheon and the Willow Community, Artwork: Eunseon Park, Design: Younghun Jung, Ahju Kwon, 2014



내성천 생태도감, 글·그림: 박은선, 디자인: 정영훈, 권아주, 2015
An illustrated guide to the flora and fauna of Naeseong River, Text and Illustrations by Eunseon Park, Design: Younghun Jung, Ahju Kwon, 2015



먹황새, *Ciconia nigra*

우리나라에서 내성천에만 찾아오는 철새 먹황새는 영주댐 공사 이후로자취를 감추었다. 먹황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이다. 그림: 박은선, 2015
Black stork (Ciconia nigra) is a migratory bird found only in Naeseongcheon in South Korea. However, their presence has dwindled significantly since the construction of the Yeongju Dam. The black stork is classified as a critically endangered species in the wild. Artwork: Eunseon Park, 2015



흰목물떼새, *Charadrius placidus*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다. 내성천을 대표하는 새 흰목물떼새. 모래톱에 알을 낳기 때문에 모래 하천에서 주로 서식한다. 그러나 댐 공사이후 모래톱이 사라지면서 흰목물떼새도 개체수가 급감했다. 그림: 박은선, 2015
The long-billed Plover is a bird that represents Naeseongcheon. It primarily inhabits sandy rivers as it lays its eggs on sandbanks. However, with the disappearance of sandbanks due to dam construction, the population of birds has significantly declined. Artwork: Eunseon Park, 2015



수리부엉이, *Bubo bubo*

그림: 박은선, 2015
Artwork: Eunseon Park, 2015



법원 앞에서 댐보다 습지라고 수놓은 현수막을 펼친 지율 스님과 현욱. 현수막에는 제비가 수 놓아져있다. 환경소송은 내성천 친구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은선의 글을 참고하라. 사진: 박은선, 2020

Buddhist nun Jiyul and Hyun Wook unfurling a banner in front of the court that reads ‘Wetlands over dams.’ The banner is adorned with swallows. Environmental lawsuits are a crucial endeavor for Naeseongcheon's friends.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Eunseon Park's writings. Photo: Eunseon Park, 2021



내성천 한 평사기 증서인 모래병, “우리가 강이 되어주자”라고 쓰여있다. 사진: 지율스님, 2011

The sand bottle that serves as a certificate of one square meter of the Naeseong River reads, “Let us become the river.” Photo: Buddhist nun Jiyul, 2011

4대강 공사에 반대하며 소신공양하신 문수스님은 정부는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정부는 부자가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라고 유서를 남기셨다. 리슨투더시티는 문수스님의 유언을 담은 티셔츠를 만들어 입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했다.

“Monument for Buddhist Monk Moonsoo” is a performance art piece that took place at the Nakdong River Gumi Reservoir during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Monk Moonsoo, who opposed the project, self-immolated and left a letter urging the government to immediately halt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eradicate corruption, and work for the benefit of the poor and marginalized rather than the rich. To honor his legacy, Listen to the City created t-shirts with his words as a way to remember him.



문수스님을 위한 기념비, 낙동강 구미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퍼포먼스, 사진: 소원영, 2011

“Monument for Buddhist Monk Moonsoo” , performance art piece that took place at the Nakdong River Gumi Reservoir during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Photo: Wongyoung So, 2011

감사의 말씀
Words of gratitude

도시 분쟁 현장과 자연 파괴의 현장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멤버들의 헌신 덕분이었다. 장현욱, 윤충근, 백철훈, 정영훈, 권아주, 황한슬, 양으뜸, 권수정, 정진열, 전선미, 황문기 등 리슨투더시티와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디렉터의 미숙함과 조급함 때문에 늘 고통받는 멤버들과, 다투고 떠난 모든 연락 안 되는 동료들, 다퉈도 늘 다시 함께 해주는 동료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응원해 주시는 여러 동료 작가분들과 늘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세미나와 행사에 늘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지율스님과 내성천의 친구들, 옥바라지 골목의 투쟁을 함께하였던 동료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의 동료 근철, 아람, 지수, 상훈, 채경, 혁규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여성예술인연대,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작가 분들, 한국과 일본의 올림픽반대연대 친구들, 노들장애인야학, 을지 OB베어 공대위의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 신도시의 윤호 병재 씨, 함께 여러 행사를 기획해 준 최태현과 을지 OB디제잉 파티와 포스트콜로니얼 미학 전시를 기획해 준 박다함, 그리고 옥바라지골목, 내성천, 마리, 궁중족발, 을지 OB베어 등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디제이들과 음악가들 예술가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10년 넘게 길에서 싸운 콜트콜텍 노동자들, 궁중족발 사장님들, 옥바라지의 구본장 사장님, 청계천 을지로의 사장님들, 을지 OB베어 사장님들 그리고 늘 어딘가에서 자신의 자리에 서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덕분에 아직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The scenes of urban conflict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are overflowing with intense stress and tension. Nevertheless, our ability to persevere here was thanks to the dedication of our members. I sincerely thank everyone who has been with Listen to the City, including Hyunwook Jang, Chung-geun Yoon, Cheolhun Paik, Younghun Jung, Ahju Kwon, Hwang Han-seul, Eutteum Yang, Soojeong Kwon, Jung Jin-yeol, Jeon Seon-mi, Hwang Moon-gi, and others.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and apologize to the members who have always suffered due to the director's inexperience and impatience, to colleagues who have left after disagreements and lost contact, and to colleagues who have always come back to work together again.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the fellow writers and colleagues who have supported us. I am also deeply thankful to those who have always participated in our seminars and events. Most importantly,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Buddhist nun Ji Yul and friends of Naesungcheon, colleagues who joined the struggle in Okbaraji Alley, colleagues from Cheonggyecheon Euljiro anti gentrification alliance such as Geun-cheol, Aram, Ji-soo, Sang-hoon, Chae-kyung, and Hyuk-gyu. I also extend my deep thanks and respect to the female artists of the Women Artists Association, Women's Culture and Arts Federation, and colleagues from the Eulji OB Bear activist collective.

I want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and respect to Yoon Ho, Byeong-jae of Seendosi, Choi Tae-hyun who planned many events together, and Daham who organized the Eulji OB DJing Party and Postcolonial Aesthetics Exhibition, as well as all the DJs, musicians, and artists who participated in events such as Okbaraji Alley, Naesseonngcheon, Mari cafe, Gungjung Jokbal, and Eulji OB Bear.

I want to thank the Cort-Cortech laborers who fought on the streets for over 10 years, the owners of Gungjung Jokbal, the head of Gu Bon-jang in Okbaraji, the owners of Euljiro Cheonggyecheon, and the owners of Eulji OB Bear, as well as everyone who always stands in their place somewhere. Thanks to everyone who has sent warm words of encouragement, I want to say that I am still alive.





